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루카 10,41-42)

〈Christ in the House of Martha and Mary〉,
Johannes Vermeer (1632~1675)

[제1독서] 창세기 18,1-10

[화답송] 시편 15(14),2-3ㄱ,3ㄴㄷ-4ㄱㄴ,5
(◎ 1ㄱ)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수 있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콜로새서 1,24-2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음] 루카 10,38-42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61] 나는 주님 포도밭
-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168] 오묘하온 성체 [178] 성체 앞에
- 파견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제한된 현실 조건에서도 충실함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흔 다섯 살이 되는 늙은 나이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창세 12,4) 그러한 그에게 하느님께서서는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사막을 방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가타부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서 난 후손에 대한 희망을 접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가르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에게서 후손에 대한 희망을 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든 살이었습니다.(창세 16,16)

그리고 세월은 흘러,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가 아흔 아홉 살이 되는 어느 날, 하느님께서서는 세 나그네의 모습으로 천막에 있던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하느님이신 줄을 모르고 사막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관례에 따라 빵도 굽고 송아지의 연한 살과 엉긴 우유를 준비해서 내어 놓습니다. 대접을 받은 세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안부를 묻고는 뜻밖에도 고대하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 18.10L)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린 연후에야 그 결실을 보게 됩니다.

루카는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사는 마르타와 마리아가 사는 가정을 방문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주님께서 방문하셨기에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꼼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동생이 야속해서 주님께 자신을 거들라고 말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녀에게는 의외였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 41-42)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린 세월은 자그마치 이십 오년이었습니다. 인간의 기대나 판단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기다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하느님의 뜻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마르타는 당장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돕지 않는 마르타가 섭섭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마르타를 사랑하시고 그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마리아의 좋은 몫’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타의 잘못이 아니라 그녀는 아직 주님의 신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마르타에게 보이는 ‘세상의 일’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구원’의 일을 일깨워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떠한 시련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간직하며 세상일에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그 생명에 참여하려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There is need of only one thing.”

We must be faithful to God even in the limited conditions of our lives. Abraham was called by God when he was seventy-five years old. God promised him to make his descendants as countless as the stars of the sky and the sands of the seashore. When Abraham was travelling in the desert for a long time, however, God did not mention anything about his descendants. Abraham gave up the hope of having his descendant through his wife, but instead had a son, Ishmael, through his wife's maid, Hagar. Abraham was eighty years old, then.

When Abraham was ninety-nine years old, God visited his tent as three men. Abraham did not recognize them and just treated them as his guests. Three men asked about his wife, Sarah, and told him great news that he had been waiting for, “I will return to you about this time next year, and Sarah will then have a son.” Abraham had waited for twenty-five years before God's promise came into reality.

In the Gospel of Luke, Jesus visited the house of Martha and Mary. Martha was busy with much serving, but Mary who sat beside the Lord at his feet listening to him speak. Martha came to him and sai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by myself to do the serving? Tell her to help me.” The Lord said to her in reply, “Martha, Martha, you are anxious and worried about many things. There is need of only one thing.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and it will not be taken from her.”

Abraham had to wait for twenty-five year. It is such a long time that one can wait just to see his promise come true. For most of us humans, the reality we can see now is more important than invisible God's will. However, Abraham believed in God no matter what happened to him. Martha was disappointed because her sister Mary did not help her.

It is important to serve the Lord. However, it is more important to listen to the Lord's teachings and his words to Salvation. It is not easy to be a good faithful. We must make all the effort to keep the hope God promised, to listen to his words, and to participate in his eternal life.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 ④

세례의 은총

우리는 저마다 세례에 대한 체험이 있다.
부모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찾아 나선 사람도 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시작 기도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과 성체로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께
찬미와 흠숭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고, 당신에게서만 기대하오니
예수님, 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유익한 모든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2 기도 지향

(내가 바라는 기도의 지향을 말씀드립니다.)

3 성령께 드리는 기도

성령님, 자주 유혹에 빠지는 저를 붙잡아 주소서.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게 하시어 주님 마음에 들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4 말씀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에 머문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케하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사도 9,3-5,9-10,17.18-20)

5 묵상

세례는 하나의 혁명입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수없이 많은 혁명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혁명만큼 강력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이 혁명은 역사를 바꾸어 놓았으며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오로는 무서운 박해자였지만,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증인, 곧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인인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6 새김 (5-10 분 정도 침묵 중에 기도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 말씀을 되새긴다.)

세례를 받은 후에 내 삶에서 변화된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7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이어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다.)

은총의 중재자이신 어머니, 사도 바오로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주소서.

8 마침기도

사랑 때문에 거룩한 감실 안에 머무시며
제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당신 말씀에서 길어 올린 풍요로운 은총과 참된 위로는
제 삶의 희망이 됩니다.
바라는 모든 이의 구원이신 주님,
오늘 제가 드린 기도를 너그려이 받아주시고
제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저의 선을 위하여 마련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온전히 따르게 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 (성바오로말 수도회 역음)를
하상주보에 실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성체조배를 하다보면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기도 안내 중)

Jr. High WorkCamp

This past week, from July 6 to July 8, more than 70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everal parishes in the area gathered at St. Leo the Great church in Fairfax for Junior High Work Camp. Hosted by St. Leo the Great church, St. Paul Chung joined forces alongside St. Mary of Sorrows, St. Mark and St. Veronica. With three adult volunteer crew leaders, t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wo high school helpers from our parish participated in this camp.

This year's theme was *"Prodigal Son: Recalculating"* and each day consisted of Mass, Service Projects, Meals, Afternoon Break time and Program. Some of the activities were Meal Packing for Christ House, Baby Bags and Blankets for Gabriel Project, Food Drive for Saint Vincent De Paul Society, Visiting Nursing Homes, Parish Work Day as well as afternoon games, Confession, Adoration, Praises and keynote talks. Through this 3 days of service, faith and fellowship, participants and volunteers have encountered Christ in service.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our parish campers and volunteers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our faith with other parishes. Special thanks go to Fr. Seong for his support, Dorothy Jeong, Joann Kim, Christopher Chang, Shawn Boyle, Allen Jeong and Sammy Hong.



My thoughts after the Camp

I had doubted my bo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 Junior High Work Camp really did change my life. Even if it were for three days and even if I were just a volunteer, I witnessed how one can change physically and mentally by serving the Lord.

– **Sammy Hong**, High school Volunteer



ANNOUNCEMENTS

1 CYO Summer Camp

- When : August 4(Thu) at 1PM - August 7(Sun) at 3PM
- Who : Rising 9th – Graduated 12th grade students
- Where : Makemie Woods Campsite (Richmond, VA)
- Late Registration : July 24, 2016 (\$125)

2 CCD Summer Camp Registration

- Who : Rising 4th - Rising 8th grade students
- When : August 12, 2016 (Fri) - August 14, 2016 (Sun)
- Where :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Registration Fee : \$100/per participant
- Registration process : Sundays (July 17 & July 24), 9:30am - 11:30am at Cafeteria

CAMP CREWS

- “My personal favorite part was becoming more developed spiritually, and getting closer to God.” - **ERIC WHANG**
- “I thought this event wa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bout overcoming challenges.” - **JUNEZUH GHANG**
- “Work Camp was something that makes us feel closer to God, make new friends, experience new things and make other people happy.” - **DYLAN JANG**
- “I hope to come next time as a High School Helper so that I can do more things.” - **MATTHEW MARGRAVE**
- “What I enjoyed in Jr. High Work Camp was making baby bags and rosaries for moms, playing baby pool kickball and flying for the food drive.” - **THOMAS YOO**
- “Our heavenly Father and it has inspired me to help a lot for the poor. It was a great experience and I look forward to doing it again!” - **RICHARD HONG**
- “I lik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team building games and the food there. Now I feel like I want to help people more than ever” - **PETER CHU**
- “I felt really good inside after helping out the people at St. Veronica’s.” - **AARON WHANG**
- “I think I will always remember my experience.” - **KATE LEE**
- “Jr. High Work Camp affected me because I was doing service to others in need and that touched my heart.” - **ISABELE KIM**

하상 한국학교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 초청 공연

하상 한국학교에서는 지난 8일(금) 한국에서 온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 을 초청하여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서 예술단은 사자탈춤, 태평무, 앉은반설장고, 진도북춤, 사물놀이, 장구춤, 버나놀이, 열두발 상모놀이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의 진수를 선보였다.

특히 버나놀이에서는 학생들이 놀이에 함께 하면서 아슬아슬하고도 흥미진진한 동작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350여 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미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한국 전통 문화의 신명과 흥을 맛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즐거워했다.

하상 한국학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한국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국 문화 체험의 장을 자주 만들 예정이다.



열두발 상모놀이



난타



버나놀이

태평무



사자춤



진도 북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레지오 마리아 가두선교 열기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가두 선교가 더욱 여름 날씨에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7월 9일 (토) 지구촌 마켓에서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영원의 성모 브레시디움 (단장 박사임 실비아) 단원 6명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톨릭을 알리는 가두선교에 비지땀을 쏟았다. 설립된 지 얼마 안된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가두선교에 나선 단원들의 열기가 더위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영광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단장 정우석 빌립보) 단원 2 명은 7월 3일 (일) 에 가두 선교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에는 천사들의 모후 브레시디움 (단장 박향숙 요안나)과 구원의 성모 (단장 이지연 아네스) 단원 6 명이 센터빌 롯데에서 가두 선교를 실시한 바 있다.

전례부 미사 해설자 및 독서자 교육



지난 10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례부 미사 해설자 및 독서자 교육이 있었다. 7월부터 바뀐 해설자와 독서자들은 각 미사 별로 세 팀으로 나뉘어 서로 보완해 주는 연습 시간을 가졌다.

한국 교회는 해마다 7월 셋째 주일을 농민 주일로 지내고 있다. 이날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도록 이끈다.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농민주일을 맞이하여 생명농업으로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에 힘쓰고 계시는 농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4일, 쌀 값 인상을 요구하다 공권력에 의해 의식을 잃고 있는 백남기(임마누엘) 형제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정부의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합니다.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들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줄줄이 밀을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에게 법칙을 일러 주시고 그를 가르쳐 주신다”(이사 28, 23-26 참조).

하느님은 이렇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농민은 이런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인간과 자연이 협력하여 하느님 창조질서에 가장 친밀하게 동참하는 생명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농산물시장 개방과 세계화의 진행으로 농촌 공동체는 파괴되고, 농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농가인구는 전체 국민의 5.3%인 275만 명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69%가 60세 이상입니다.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1.5ha에 불과하고, 연간 농업소득은 1천만 원 가량으로 영세 소농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57%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간인 쌀까지 지난해부터 관세화를 통해 완전 개방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농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농산물을 정직하게 생산하는 농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생명 존중과 형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기관과 시설, 사제관과 수도원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밥상 차리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청합니다. 또한 교우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식생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본당의 생명농산물 직매장도 더 많이 개설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특별히 쌀값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 형제자매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행사에 우리 쌀로 만든 떡이나 빵, 과자, 음료 이용하기,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 촉진에도 적극 동참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밀과 쌀을 감사히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새롭게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부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16년 7월 17일 제21회 농민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유흥식 주교

Cox Ch.30, 830
Fios Ch. 30

하상 TV 하이라이트

7월 21일 (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아시아에 희망을 심다 3**: 몽골 교육 사업에 열정을 쏟는 몽골 살레지오 수도회 한국 수녀들
- **생명 그리고 사랑 7**: 회복으로 가는 길/ 부천성모병원 알콜 의존 치료 센터

7월 22일 (금) 오후 10시~11시

- **특집 다큐**: 사제 "예, 여기 있습니다"

셔틀버스 추가 운행 안내

• 셔틀버스를 주일 아침 7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추가로 운행합니다.

셔틀버스 스케줄

- ▶ NGIS (Northrop Grumman Info) 주차장에서 성당으로
 - 오전 7:20 에서 10분 간격으로 7:50 까지
 - 오전 9:20 에서 10분 간격으로 9:50 까지
- ▶ 성당에서 NGIS 주차장으로
 - 오전 11:15 에서 10분 간격으로 11:45 까지
- ▶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단체 모임과 10시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은 아침 셔틀버스를 이용하시어 10시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위해 주차 공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2016년 7월 10일 (연중제15주일)

| | |
|-----------|---------------------|
| 주일헌금 | \$ 7,262.00 |
| 교무금 | \$ 13,620.00 |
| 교무금(신용카드) | \$ 1,600.00 |
| 특별헌금 | \$ 520.00 |
| 2차 헌금 | \$ 0.00 |
| 합계 | \$ 23,002.00 |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 | |
|--------|----------|
| 7월 17일 | 퀘어팩스 1 |
| 7월 24일 | 퀘어팩스 2-1 |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태,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승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벽참(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틴),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병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도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더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병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1 2016-2017년도 사목보고회

- 일시 : 7월 31일(일) 오후 1시 (점심 식사 12:00)
- 참석 대상 : 사도임원, 재정위원, 사도회 임원, 구역 소공동체 봉사자, 단체인(신심 및 활동 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CD, CYO), 교감, 하상문화원 원장, 하상방송 코디네이터, 하상성인학교 교장/교감, 하상한국학교 교감
- 문의 : 최재필 총무 (703)589-6580

2 하상회 정기 모임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30 (B-3,4)

3 안나회 정기 모임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30 (A-1,2,3,4)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5 Quo Vadis(성소자 모임)

- 일시 : 7월 17일(일) 오후 12:45 (B-3,4)

6 베드로회 월례회

- 일시 : 7월 17일(일) 오후 1시(B-1,2)

7 바오로회 모임

- 일시 : 7월 17일(일) 오후 4시(친교실)

8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지 순례자 모임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30(하상관 # 106)
- 성지순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어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 데레사 (703) 425-9445, (703) 674-6081

9 울뜨레야 정기 모임

- 일시 : 7월 22일(금) 오후 8시 (B-1,2)
- 문의 : 광노덕 도미니코 (703) 608-9664

10 K of C 정기 모임

- 일시 : 7월 24일(일) 오전 11:30 (B-1,2)
- 문의 : 김 버나드 (703) 342-2194

11 요한회(50대 신자) 정기 모임

- 일시 : 7월 24일(일) 오전 11:30 (B-3)

12 NJ 파티마 본부 일일 성지순례

- 일정 : 8월 13일(토)
- 등록 : 미사 후 친교실 17일(일), 24일(일)
- 문의 : 김만식(재권요셉) (703) 403-1185

13 CCD 여름 캠프 신청

- CCD 여름 캠프신청 : 미사(8시,10시,11:40) 후 친교실
- 캠프 일정 : 8월 12일(금) - 8월 14일(일)
- 장소 : Pine Creek Retreat Center
- 문의 : 서동민 (571) 435-6476

14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주일학교에서는 교리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교우분들은 성당 사무실이나 주일학교 교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성당 사무실(703)968-3010

15 P.R.H Summer Retreat 2016(Peace Retreat House)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 ▶ Pentecost Festival 2016
- 대상 : 청소년부(18세 이상)
- 일시 : 8월 12일(금) 오후 5시 - 8월 14일(일) 오후 3시
- 비용 : \$70 (Checks Payable to: Peace Retreat House)
- 등록 및 문의 : Peace Retreat House (484 Pump House Rd, Weatherly, PA 18255) (570)-427-2467/ sisters@peaceretreat.us

교향님 7월 기도지향

| | | | |
|------------------------|---|---------------------------------|--|
| 일반지향: 토착 민족들 | 정체성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토착 민족들이 정당한 존중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지향: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의 교회가 대륙의 선교를 위하여 새로운 힘과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도합니다. |
|------------------------|---|---------------------------------|--|

금주의 행사

| 날짜 | 축일 |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
|-----------|----------------|---|
| 7월 17일(일) | 연중 제16주일 | 하상회(11:30, B-3,4), 안나회(11:30, A-1,2,3,4), 꾸리아월례회의(11:40, 하상관 B-4,5), 베드로회 월례회(13:00, A-1,2), Quo Vadis(13:00, B-3,4), 바오로회(16:00, 친교실), CLC피정(18:00, 친교실) |
| 18일(월) | 연중 제16주간 월요일 | 아침 미사(6:00, 성당),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
| 19일(화) | 연중 제16주간 화요일 |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경기도회(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
| 20일(수) | 연중 제16주간 수요일 |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
| 21일(목) | 연중 제16주간 목요일 | 아침 미사(6:00, 성당),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
| 22일(금) |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CLC, 프란치스코, 울뜨레야(20:00, B-1,2), 재정위원회(20:00) |
| 23일(토) | 연중 제15주간 토요일 |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M.E. 봉사자 모임(19:00, 친교실) |
| 24일(일) | 연중 제17주일 | KofC(11:30, B-1,2), 요한회(11:30, B-3,4), CLC피정(18:00, 친교실) |

| | | | | |
|--|---|---|--|--|
|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
|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 주택용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
|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
|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
|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영업 (요한) 703-451-3322 |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
|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
|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 Springfield TOYOTA New / Used Cars 조상준(유스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 찬틀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
|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 Kitchen, Deck Sunroom 혜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
|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 Golf Lesson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손 678-800-3451 |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 | |
|---------|--|
| 주일미사 |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
| 토요일 저녁 | 07:30 PM |
| 주일학교 수업 | 주일 10:00 AM |
| 월 & 목 | 06:00 AM 화 & 금 07:30 PM |
| 수요일 | 11:00 AM 토요일 07:00 AM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